

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 고수온 피해신고 경북지역 현장점검

- 포항시 육상 수조식 양식장 고수온 대응상황 점검

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8일(금) 포항시 송라면 조사리 육상 수조식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에 따른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을 격려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8월 24일 13시 기준 동해 포항 해역의 수온은 26.3℃로 전년 수온 대비 4.7℃ 높은 수온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전년 피해가 없던 강도다리 피해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철저한 고수온 피해 예방·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 차관은 이 자리에서 “경북지역은 올해 고수온 피해가 가장 극심한 만큼, 철저한 현장점검과 대책 마련을 통해 현장의 어업인분들께서 겪고 계실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며, “해수부와 지방정부, 어업인이 서로 협업하는 동시에, 필요시 긴급 방류도 활용하여 피해량을 저감시키는 등 노력을 통해 이번 고수온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1-773-5610)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범규 (051-773-5626)